



중국으로 뻗어나가는 국내 ESCO

중국 ESCO 로드쇼

취재 / (사)ESCO 협회

2012년 11월 27(화)일부터 12월 1(토)일까지 4박 5일 동안 중국 광둥성과 시안 일대에서 지식경제부 주최, KOTRA 주관의 중국 ESCO 로드쇼가 진행되었다. 이번 중국 ESCO 로드쇼의 목적은 한-광둥성 경제무역발전포럼, 한-산시성 에너지환경포럼 등 정부간 추진하는 대형 포럼의 부대행사로 추진해 중국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고 기업이 단독 추진하기 어려운 시장조사, 현지답사 및 네트워크 구축을 공동 실시함으로써 관련 분야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토대 마련하기 위한 행사였다. 주요 내용은 포럼(한-광둥성 경제무역발전포럼, 한-섬서성 경제협력포럼)과 상담회(중국 기업, 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프로젝트 상담회), 네트워킹 오만찬, 개별업체 방문상담 또는 시찰 등으로 구성되었다. 11월 27일 광둥성 에너지기업 남방전력을 시찰을 시작으로 28일에는 한-광둥성 포럼(에너지 절약 환경분야)이 개최되었으며 오후에는 광둥성 에너지절약 상담회가 개최되었다. 29일에는 한-섬서성 경제협력 포럼이 개최되었고 11월 30일에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회를 가진 바 있다. ESCO협회는 중국 광둥성에너지절약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절약서비스에 대한 정보교류 및 한-광

둥성 에너지절약사업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광둥성에너지절약협회 및 섬서성에너지절약협회와의 상담을 통해 양 협회간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상호간의 협력·지원 가능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기로 협의했다.

한-광둥성 경제무역발전포럼에서는 에너지절약과 환경산업 분야에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유관기관간 협력 MOU와 LED제품 생산·폐기물처리사업 분야에서 기업간 구체적인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섬서성 경제협력포럼에서는 섬서성 발전계획(섬서성 정부), 한-섬서성 협력방향(지경부-KIEP), 반도체 투자계획 및 협력기회(삼성) 등의 발표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시한 동반자 비전의 구체화된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1 맞춤형 상담회(광둥성, 시안)를 통해 ESCO관련 국내기업 23개사 모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즈, 전력 및 냉난방,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절약기술에 대한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주)도암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등은 투자상담과 더불어 현장시찰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참가기업들은 단독 추진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상담을 이번 로드쇼와 같이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앞으로도 ESCO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에너지절약, 광동성에 뜻을 펼치다

이번 로드쇼에서 지정부는 현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으로 시진핑 시대 공청단의 핵심리더인 왕양(汪洋) 광동성 당서기를 면담해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양측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왕양 당서기간 합의*로 창설된 한-광동성 포럼을 통해 양측간 지속적인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왕 당서기는 한국과 광동성이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앞으로 첨단신산업 등 산업 전분야로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고 에너지자원 위기, 한중 FTA, 광동성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등 새로운 도

전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양측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 광동성 12.5규획 : 전략적 신흥산업, 금융·물류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한편 제 3회 한-광동성 경제무역발전 포럼이 개최되어 '에너지 절약 및 환경산업 한국-광동성 협력 증진'을 주제로 장관, 광동성 성장 및 한-중 기업인 등 약 400명이 참석하였으며 에너지절약과 환경산업 분야에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유관기관간 협력 MOU와 LED제품 생산·폐기물처리사업 분야에서 기업간 구체적인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 방문단은 포럼에 참석한 주샤오단 성장과 왕양 당서기와 합의한 한-광동성 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기초연설에서 성공적인 협력모델 창출을 위해 전략적 신흥산업뿐만 아니라 이미 교류가 활발한 제조업과 연계한 엔지니어링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사업 발굴을 제안했다. 또한, MOU 세레머니 후 로봇 축하공





연을 통해 전세계 제조용 로봇의 각축장인 광둥성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선보여, 향후 시장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광둥성에서 최초로 투자유치 IR을 개최하여 광둥성 기업의 對한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KOTRA IK와 광둥성경제무역청 간 MOU를 체결하여 상호 투자유치 지원에 합의했고 이와 함께 ESCO 로드쇼·환경산업 설명회·비즈니스 상담회·로봇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우수기술 홍보, 기업 간 협력파트너 발굴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광둥성 협력 MOU 주요내용

(韓) KOTRA IK : (中) 광둥성 대외무역경제합작청(정부)

- 한-광둥성간 경제정보 및 정책법규 등 정보 교환
- 상호 투자촉진단 파견 및 투자유치 지원 등 투자 및 교역 활성화 협력

(韓) 에너지관리공단 : (中) 광둥성 경제신식화위원회(정부)

- 한-광둥성간 에너지절약 정책 및 정보교류
- 상호간 공무원 및 기술자 초청 견학 및 연수 실시
- 기업간 협력사업 발굴 및 행정적·제도적 지원

(韓) ESCO 협회 : (中) 광둥성 에너지 절능협회

- 한-광둥성 ESCO 기업간 에너지절약 기술 교류 및 기술자 교류
- 기업간 에너지절약기술 사업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韓) 환경기술원 : (中) 광둥성환경산업보호협회

- 한-광둥성간 기술 및 정보교환 등 협력채널 확립
- 국제투자 촉진 및 무역행사 공동 개최

(韓)파인테크닉스 : (中)동완시백분백과기유한공사

- LED 제품 : 기술(韓)+생산·판매(中)(총2천만불/5년) 및 공동 투자 법인설립

(韓)원라인테크 : (中)광주시중녹환보유한공사

- 중국내 오폐수 처리사업 협력 : (中)수주(3천만불/5년)+(韓)동 사업에 대한 주요설비 납품(수주액의 30%수준)

(韓)엠쓰리 : (中)광주도시보건환경과기유한공사

- 중국내 폐기물 처리사업 : (中)수주(5천만불/2년) 및 (韓) 주요설비 납품

이 외에도 광둥성 에너지절약 상담회가 개최되어 국내 23개 ESCO관련 기업과 중국현지에서 참가한 중국 광둥성 기업과의 1:1 투자상담을 실시했다.

한-섬서성 경제협력 MOU

11월 29일에는 시안으로 자리를 옮겨 한-섬서성 경제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섬서성 성장 및 한-중 기업인 등 약 400명이 참석하고 섬서성 발전계획(섬서성 정부), 한-섬서성 협력방향(지경부-KIEP), 반도체 투자계획 및 협력기회(삼성) 등의 발표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시한 동반자 비전의 구체화된 협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금번 방문은 중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서부 대개발과 중국 내수시장 중점 육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서부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 시도였다. 섬서성은 중국 서북지역 경제중심으로 산업기반이 우수하고 중국의 중앙아시아·유럽 진출의 통로로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 중이다.

* GDP 성장률(%): 15.6('08) → 13.6('09) → 14.5('10) → 13.9('11)

* 주강(광둥), 장강(상해), 환발해(북경)에 이은 제4경제권(삼각: 서안-성도-중경) 부상

지경부는 섬서성을 중국 성시별 협력의 우선 대상으로 선

정하고 29일 섬서성 자오정용(趙正永) 성장과 면담을 통해 한-섬서성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섬서성 경제협력 포럼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는 새로운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1월 29일 서안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섬서성 경제협력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섬서성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및 중국진출 기업들과 섬서성 주요 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 한국에 대한 섬서성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포럼은 섬서성 발전계획(섬서성 정부), 한-섬서성 협력방향(지경부-KIEP), 반도체 투자계획 및 협력기회(삼성) 등의 발표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시한 동반자 비전의 구체화된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또한 에너지·환경의 정책과 한중 협력사례 교류를 통해 동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을 타진하였다. 홍석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스마트 녹색성장 동반자 관계구축을 통해 앞으로 서안(섬서성)에서 한국까지 이어지는 경제 협력의 新실�크로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한중 수교 20주년의 성과를 뛰어 넘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중국 지방과의 협력에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이를 구체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활동으로는 섬서성 현지 기업·유관기관·중국 주요 진출기업*과 11.28일 섬서성(서부) 진출 전략회의 만찬을 통해 중국 서부에 열리고 있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업의 전략과 애로 등을 청취하고 섬서성 및 중앙정부 채널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 (중국 총괄) 롯데HQ, LG상사, GS청도리동화공, 글로벌스 등, (현지) 삼성, 심텍 등 (기관) 산단공, 광자공, 예경연, KOTRA 등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중국 중서부의 주요지역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중서부 진출을 촉진할 예정이다.

중국 ESCO 로드쇼 국내 참가업체

(주)도암엔지니어링, (주)에너지관리기술, GS파워(주), (주)테크윈, (주)에너지솔루션즈, (주)삼천리이에스, 대우조선해양, 대우정보시스템, 아이케이, 아이파이브, 삼성전자, 예코다, LIG엔설링, LIG손해보험, 나노케미칼, (주)한국수와로, (주)유티솔, 안테크, (주)세기종합환경, 이츠웰, 크라텍(주), 한미엔텍, 에코아이이앤씨





중국로드쇼 참관기1. (주)에너지관리기술 심수섭 대표이사

중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은 일부에서 선진기술이 도입되어 상당수준의 과도에 진입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어 우리나라 ESCO기업이 진출한다면 성공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ESCO업체와 협력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일례로 한국에서는 기술, 중국에서는 자금을 동원하여 ESCO사업을 수행하고 이익금의 분배 및 회수방안도 심층 검토하여야 한다. 이번 상담회에서 에너지관리기술은 광저우 및 시안에서 약 20여개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2~3여개 기업과 중국시장에 ESCO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협의하고, 한국에서는 기술, 중국에서는 자금을 동원키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상호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시안 및 내몽골에 있는 석유화학공장에 ESCO사업을 위한 에너지진단을 20만달러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하얼빈에 있는 철강공장에서는 폐열회수를 위해 그간 일본업체와 접촉하였으나 이번 기회에 한국기업과 협력하는 구체적 방안을 협의키로 하고, 우드팰릿 이용방안 공동추진 등에 대한 상호관심사를 상담하고 상호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중국로드쇼 참관기2. (주)테크원 이성관 팀장

고도성장의 중국은 환경오염 예방과 에너지절약의 관점에서 에너지절약형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RTO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아직 환경규제에 관한 기준이 한국만큼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먼지(Dust)에 대한 방지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s)에 대한 규제는 외국투자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다. 테크원은 현재 남경의 LG화학에 RTO를 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중국의 국영기업보다는 한국의 중국투자회사를 위주로 시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국영기업으로의 시장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바이어와의 연락을 통하여 시장형성의 과정에 맞추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중국로드쇼 참관기3. (주)삼천리이에스 최지용 계장

이번 상담회를 통해 중국의 광저우 및 시안에서, 약 10여개의 회사와 기술교류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신제품 및 신사업 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들의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 또는 자원개발업이며, 현재 중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한국 기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제조기반의 회사이다. 삼천리이에스는 에너지절약설비(GHP, Co-gen, Fuel Cell)의 판매·시공, 에너지플랜트, 에너지컨설팅, Engineering, 설계, 신재생에너지 등의 Total Energy Solution을 제공하는 에너지 전문기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차별화된 Energy Solution과 Engineering Service 사업에 진출하고자 한다.

